

# 전국 첫 가두리 양식장 바닥 준설

여수, 내달말까지 5억여원 들여 정화

10년 이상 쌓인 어류 퇴적물 등 제거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가두리 양식 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해상 가두리 양식어장의 지속 가능한 생산성 확보와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총사업비 5억2천만원을 들여 황정면 월호리 지선 가두리 양식장 1개소 2.25ha를 대상으로 정화사업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10여년간 둑과 농어, 우럭 가두리 양식을 해온 곳이다.

여수시는 9일 시공사 정화 바지선

인 시크릿호 선내에서 여수해경,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여수지소, 월호어촌계장, (주)코스코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두리 양식어장 정화사업’ 어업인 설명회를 갖는다.

해상 가두리 양식어장은 해저에 사료찌꺼기와 양식어류 배설물이 최소 10년 이상 쌓아면서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등 성장저하, 질병발생으로 이어져 해저 퇴적물 수거를 위한 어장 정화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여수시는 9일 시공사 정화 바지선

380m<sup>2</sup>를 수거했다. 사업후 전남 수산 기술사업소에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탄도, 서식어류 등 여레 항목에 걸쳐 어장 해양환경을 조사분석한 결과 일반 양식어장 수준으로 회복돼 바다 밑바닥 저질(底質) 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관계자는 “조류(藻類) 등이 바다 밑바닥에 가리앉아 썩어서 생긴 진흙인 부니(腐泥)류가 확산돼 가두리내 양식어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완료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가두리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역 가두리 양식장은 62개소 196.5ha에 달한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박성태기자 dhkim@

8일 함평군 손불면 금계리 함평항에서 어민이 출어를 앞두고 낙지통발을 챙기고 있다. 통발은 한번 들어가면 거슬러 나오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으며 낙지, 꽃게, 주꾸미집이 등에

/함평=워커링기자 jrwj@



풀어 끔꾸며...

주로 사용된다.

8일 함평군 손불면 금계리 함평항에서 어민이 출어를 앞두고 낙지통발을 챙기고 있다. 통발은 한 번 들어가면 거슬러 나오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으며 낙지, 꽃게, 주꾸미집이 등에

/함평=워커링기자 jrwj@

## 5월 여수는 ‘축제의 도시’

3~6일 이순신광장 일원서 ‘거북선대축제’

신종플루로 연기된 ‘세계불꽃축제’도 열려

여수 거북선대축제와 세계불꽃 축제가 동시에 개최된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2010 여수 거북선대축제’가 5월 3일부터 6일 까지 4일간 여수시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열리지 못했던 ‘여수 세계불꽃축제’가 어린이날인 5일 이순신광장 앞바다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참가한 가운데

4억9천500만 원을 들여 거북선 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사단법인 진남제전보존회와 여수 거북선대축제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삼도수군 통제영이자 전라좌수영이었던 여수 지역의 특색을 살려 이순신과 관련한 타지역 축제와 차별화를 꾀했다.

올해 축제는 좌수영 수군의 압·출정식, 독제 등 ‘출정, 승전의 장’

을 비롯해 이순신의 효와 인간적 측면을 강조한 ‘전라좌수영장’, ‘시민참여 체험의 장’, 불거리·먹물거리·즐길거리로 강조한 ‘축제의 장’ 등 ‘거북선과 세계로!’ 주제를 살린 예년과 다른 구성으로 전개된다.

올해 축제는 예년 여수신항이 주무대였던 것과 이순신광장을 주 무대로 꾸몄다.

또 출정의 문화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임진왜란 때 등장한 거북선의 실물크기 6분의 1 모형 거북선을 전개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박치기 왕’ 김일

#### 기념사업 탄력

#### 재경향우회 등 성금 담지

고흥군이 추진하는 ‘박치기 왕’ 고 김일 선수(1929~2006) 기념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재경향우회 양재수(54)씨 1천만원, 김송일(51)일화건설 대표 100만원 등 각계각층에서 쾌척한 성금이 현재까지 2천 500만원 달지했다.

고흥군은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 완공목표로 고 김일 선수의 출생지인 금산면 이전리에 김일 체육관을 비롯해 기념 전시관과 야외공원 등을 조성중이다. 고흥군은 지난해 9월 김일 기념체육관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김일 기념체육관 건립추진 위원회 김금식 위원장은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에 통쾌한 ‘박치기 한방’으로 희망과 감동을 주었던 국민영웅이 고흥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일 기념체육관은 5월 1일까지 야간 귀농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직장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일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전남도 농

업기술원에서, 주말(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담양에서 현장학습이 이뤄

진다.

## 모든 시설작물 이상기온 피해조사

### 전남도, 농림부에 지원대책 요청

이상기온에 따른 피해조사가 시설 채소에서 화훼류 등 모든 시설작물로 확대된다.

전남도는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시설작물에 대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모든

작물에 대해 10일까지 피해를 조사해 제출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는 관할 시군이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의 일조시간이 358.3시간으로 평년보다 105.4시간

이 적고 3월 하순 일조시간은 14.5시간으로 평년보다 52.2시간이 적었던 반면 강수 일수는 19일로 전년 12일보다 7일이 많았다.

이로 인해 전남도내 전 지역의 모든 시설작물에서 죽과량이 떨어지고 짹빛곰팡이병 등이 발생해 상품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다.

/장필수기자 bungy@

## 도시 직장인 ‘맞춤형 영농교육’

### 농기원 귀농·귀촌 정착 요령 등 지원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영농교육이 실시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으나 직장생활로 주간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설리리만, 회사원, 공무원 등 직장인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5

월 1일까지 야간 귀농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직장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일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전남도 농

업기술원에서, 주말(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담양에서 현장학습이 이뤄

진다.

교육 희망자는 전남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jares.go.kr](http://www.jares.go.kr))에서 교

육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 (061-330-2121)나 메일(in-gupark@korea.kr)로 오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061-330-2724)

/송기동기자 song@

### 곡성 옥과농협

#### 인재 장학금 전달

곡성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은 최근 조합원의 학자금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옥과농협은 옥과, 오산, 겸연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녀 대학생 32명과 고등학생 13명 등 모두 45명에게 3천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베트남에서 시집과 귀화한 이주여성 흥현희(전남과학대 통역학과 1년)씨가 장학금을 받아 화제가 됐다.

이주여성 흥현희는 전남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jares.go.kr](http://www.jares.go.kr))에서 교육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 (061-330-2121)나 메일(in-gupark@korea.kr)로 오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061-330-2724)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 영광서 都農 축제 한마당

광주YMCA 민트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채

영광에서 시골주민들과 도시민들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가 열린다. 노인복지시설 ‘여민동락(與民同樂) 공동체’는 10일 영광군 묘량면 일원에서 ‘2010 새봄맞이 1박2일 나눔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 주민과 도시민의

네트워크를 구축, 농촌의 복지·교육·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한때 폐교 위기에 처했던 묘량 중앙초등학교를 살리자(본보 3월 29일자 11면)는 취지로 마련됐다.

여민동락이 제공하는 산나물 비빔밥으로 소박하게 점심을 하고 나서 오후에는 묘량 게이트볼장에서 건강 사회를 여는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 아이안과, 광주 진미미어의무료검진, 영정사진 촬영 등 지역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준비됐다.

이날 오전 묘량 중앙초등학교 강당

에서는 묘량면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들을 상대로 ‘시끌마을 사랑나눔 공연’이 열려 마술사 최승재와 광주 YMCA 민트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졌다.

네트워크를 구축, 농촌의 복지·교육·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한때 폐교 위기에 처했던 묘량 중앙초등학교를 살리자(본보 3월 29일자 11면)는 취지로 마련됐다.

여민동락이 제공하는 산나물 비빔밥으로 소박하게 점심을 하고 나서 오후에는 묘량 게이트볼장에서 건강 사회를 여는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 아이안과, 광주 진미미어의무료검진, 영정사진 촬영 등 지역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준비됐다.

이날 오전 묘량 중앙초등학교 강당

에서는 묘량면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들을 상대로 ‘시끌마을 사랑나눔 공연’이 열려 마술사 최승재와 광주 YMCA 민트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졌다.

네트워크를 구축, 농촌의 복지·교육·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한때 폐교 위기에 처했던 묘량 중앙초등학교를 살리자(본보 3월 29일자 11면)는 취지로 마련됐다.

여민동락이 제공하는 산나물 비빔밥으로 소박하게 점심을 하고 나서 오후에는 묘량 게이트볼장에서 건강 사회를 여는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 아이안과, 광주 진미미어의무료검진, 영정사진 촬영 등 지역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준비됐다.

이날 오전 묘량 중앙초등학교 강당

에서는 묘량면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들을 상대로 ‘시끌마을 사랑나눔 공연’이 열려 마술사 최승재와 광주 YMCA 민트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졌다.

네트워크를 구축, 농촌의 복지·교육·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한때 폐교 위기에 처했던 묘량 중앙초등학교를 살리자(본보 3월 29일자 11면)는 취지로 마련됐다.

여민동락이 제공하는 산나물 비빔밥으로 소박하게 점심을 하고 나서 오후에는 묘량 게이트볼장에서 건강 사회를 여는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 아이안과, 광주 진미미어의무료검진, 영정사진 촬영 등 지역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준비됐다.

이날 오전 묘량 중앙초등학교 강당

에서는 묘량면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들을 상대로 ‘시끌마을 사랑나눔 공연’이 열려 마술사 최승재와 광주 YMCA 민트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졌다.

네트워크를 구축, 농촌의 복지·교육·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한때 폐교 위기에 처했던 묘량 중앙초등학교를 살리자(본보 3월 29일자 11면)는 취지로 마련됐다.

여민동락이 제공하는 산나물 비빔밥으로 소박하게 점심을 하고 나서 오후에는 묘량 게이트볼장에서 건강 사회를 여는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 아이안과, 광주 진미미어의무료검진, 영정사진 촬영 등 지역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준비됐다.